



광주도시공사,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

광주시도시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가 대리 신고해 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사진)

21일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담울 공동법률사무소 소속의 안정미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내부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하고,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음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범전철 상임감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하여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대한기계설비건설협, 장학금 기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21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이날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과 최봉호 명예 회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정부 위탁사업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660여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설산업 정보 제공과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협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지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지사, 수도요금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지사장 정영달)는 지난 19일 장흥군을 찾아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약계층 97가구에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달 장흥수도지사장은 "2013년부터 장흥군으로부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건네주셔서 감사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힘쓰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광주자원순환협, 시민 자원회수시설 견학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광주시민 35명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찾았다.(사진)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지난 2020년 시민들의 제안해 만들어진 자원순환 네트워크 조직으로 시민, 행정,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21일 협의체와 광산구에 따르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나 올해 2차례 입지 선정이 무산된 바, 시민들과 함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찾자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광산구 쓰레기 줄이기 100가구 시민실천단'이 협의체에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광산구 주민을 포함하여 5개구 거주 시민들이 참여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자원봉사센터, KOICA 연수 환영식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광주남구 임암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필리핀 연수생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1차년도)' 연수생 환영식을 가졌다.(사진)

21일 광주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이날 환영식은 한국 전통의 가야금 연주와 필리핀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양 국간 우애를 다졌으며 환영사와 연수단의 답사, 세부 연수일정 안내 및 네트워크 기관 소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러졌다.

김재규 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필리핀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도왔던 '헬맹국'이라며 "이번 연수가 필리핀의 재난대응 민관협력 역량 강화는 물론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의 파트너십과 우호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서부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 교실

광주 서부소방서는 21일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장애인과 관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화재 및 급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 초기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체험 △하임리히 체험 △올바른 119 신고 방법 △화재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이다.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변경된 공동주택 피난 행동요령으로 화재 상황에 따라 피난 여부나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불나면 살피서 대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상이 기자

'학폭 논란' 전종서, SNL 코리아 시즌6 첫 호스트로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전종서(사진)가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

전종서는 오는 31일 오후 8시 처음 공개하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6의 호스트로 나선다.

전종서는 "초대해 줘서 영광"이라며 "그동안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능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어떤 호스트보다 더 열심히 망가질 테니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전종서는 학폭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4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는 "(전종서가) 특하면 애들 체육복이랑 교복 춤치



거나 뺏고, 안주면 욕하고 다굴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당시

전종서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오는 29일 공개를 앞둔 전종서 주연의 티빙 '우씨왕후'는 중국풍의 의상 등 역사 고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역사에 기록된 인물을 기반으로 재창작된 사극"이라고 해명했다.

곽지혜 기자

'더 인플루언서' 오징, '스포 논란'에 상금 3억 물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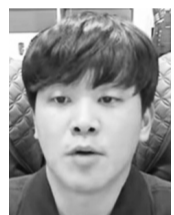
최근 '스캠 코인'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오징(32·오병민·사진)이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지만,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넷플릭스는 "프로그램 신뢰도와 출연자 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로,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징은 암호화폐 사기인 '스캠 코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 더 인플루언서가 방영되기 전 최종 우승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사실은 스캠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이 지난 5월2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징이 3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에서 해



명한 건 더 인플루언서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최 전 대표는 "1월 13일 유덕준과 오징이 우리 집에 놀러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우승자는 오징 본인이고, 상금 2억원~3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오징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이사로 등재했지만, 투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오징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위너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소셜 서바이벌이다. 지난 6일 공개 이후 국내 넷플릭스 1위에 올랐으며, 글로벌 톱10 TV쇼(비영어) 부문 4위를 차지했다. 오징 논란 이후 넷플릭스는 "(오징을) 출연자들과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편집했다"고 밝혔지만, 분량이 상당히 비판이 쏟아졌다.

곽지혜 기자

빌리 아일리시,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수 1억명 ↑

'Z세대 아이콘'인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사진)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 월 별(최근 28일간)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로 올랐다.

21일 음반 유통사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아일리시가 지난 5월17일 세 번째 정규 음반 '히트 미 하드 앤드 소프트(HIT ME HARD AND SOFT)'를 발매한 이후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이 플랫폼 역사상 월 청취자 수를 1억 명을 넘긴 건 아일리시 포함 총 세 명뿐이다. 월간 청취자 1억7000만 명을 보유한 캐나다 팝스타 더 위켄드(The Weeknd)와 1억2000만 명을 보유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아일리시가 세 번째다.

특히 아일리시는 더 위켄드, 스위트보다 적은 곡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아일리시는 이들 중 가장 어리다.

아일리시의 역작으로 통하는 '히트 미 하드 앤드 소프트'는 발매된 지 3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인기다. 수록곡



'버즈 오브 어 페더(BIRDS OF A FEATHER)'는 최근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인 '글로벌 200',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앨범 밖 활동도 연일 화제다. 아일리시는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팬들과 직접 만났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KBS 2TV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유튜브 채널 딩고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유튜브 채널 'ODG'에 출연했다.

특히 최근 '2024 파리 올림픽' 폐회식이자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예고 행사에서 '버즈 오브 어 페더'를 로스앤젤레스(LA) 해변에서 열창해 호응을 얻었다.

아일리시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최연소 본상 4관왕이자 아카데미 시상식 최연소 2관왕에 오르는 등 20대 초반에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뉴시스